

바드와 예언의 의미

허 윤 덕

I

경험이란 위안이나 마음의 평안 같은 일에서 뿐만 아니라, 고도의 영적 가치를 지닌 일에서도 쓰러린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존재이다.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경험의 노래』(*Songs of Experience*)는 바로 이러한 경험의 상태를 바드(Bard)의 예언적 분노와 통찰로 조명하려 한다. 『경험의 노래』의 전반적 특징은 대지를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예언적 목적과 인간과 사회가 처해 있는 불행한 상태에 관한 예언적 인식이다. 더욱이 이 작품집은 인간, 신 그리고 실재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기독교적 관점이 사실은 인간의 깨어남을 방해하는 주요한 환상이라는 것을 밝히려 한다.

『시적 소묘』(*Poetical Sketches*)와 『순수의 노래』(*Songs of Innocence*)와 비교해서 『경험의 노래』는 이들 작품에서 보았던 예언 문학의 대부분의 특징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그 개혁 정신과 목적에 의해 이들 작품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앞서의 두 작품집과 마찬가지로 블레이크는 실재의 예언적 차원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인지 방식과 사유 방식을 수정하고 있으며, 기존 체제의 핵심적 개념을 전복하여 세계와 인류의 역사에 대한 포괄적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독자들의 인식을 더 높은 단계로 높이기 위해 변증법적 구도를 사용하면서 그 매개체로 예언적 화자들을 등장시킨다.

『경험의 노래』에 등장하는 예언적 화자들은 현실에 대한 그들의 비전의 잠재적 대안으로서 실재에 대한 순수의 비전을 유지하면서, 경험을 통해 인간의 정신과 사회의 작용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는다. 통찰력과 비전에 대한 순수의 방식과 경험의 방식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화자들은 실재에 대한 예언적 차원을 통해 과연 무엇들이 삶을 파괴하는 요소들인가를 제시한다. 화자들이 현실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있고 인간의 타락한 상황을 개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 속에 나타난 사회비평은 직접적이면서 명시적이다. 물론 『경험의 노래』의 화자들이 모두가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예언적 화자들의 노래 또한 이전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들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경험의 노래』의 모든 노래들은 지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전이 시간과 공간, 신, 인간, 그리고 자연의 장애물들에

*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대해 통찰하는 바드에 의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의 노래』는 그래서 그의 부름에 대한 대지의 비통하고도 고통스러운 거부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제시하려는 바드의 시도이다. 이것은 또한 대지의 부름에 대한 바드의 대답이기도 하다. 『순수의 노래』의 노래들이 “양에 대한 노래를 불러 달라는 (Piper a Song about a Lamb)”는 천상의 어린이의 요청에 대한 파이프(Piper)의 반응이라면, 경험의 노래는 “무거운 사슬을 부수어 달라는(Break this heavy chain)” 대지의 고뇌 어린 요청에 대한 바드의 반응인 것이다. 바드가 묘사하고 있는 세계는 대지의 세계이며, 그 세계는 족쇄와 사슬, 내밀한 기쁨, 이기적이고 잔인한 아버지들, 그리고 좌절된 처녀와 아이들로 들어찬 곳이다. 바드는 대지의 눈을 통하여 봄으로서 대지를 구속하고 있는 힘뿐만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할 힘을 발견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예언적 분노와 통찰을 통하여 바드는 “마음이 버려 만든 족쇄(mind-forged manacles)”를 타파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경험의 노래』에서 블레이크는 대지의 복귀 신화를 통하여 우주에 대한 포괄적 비전을 제시한다. “서시(Introduction)”에 나타난 신화는 소위 ‘Lyca poems’에 나타난 신화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 신성은 대지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온유한 조물주”의 자비로운 이미지 속에 나타난다. 대지의 타락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애매모호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때문에 신이나 예언자에 의해 비난을 받지 않는다. 더욱이 대지의 깨어남과 복귀는 진리를 판별하고 실재를 인식하는 환상적 방법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진다. 『경험의 노래』에서 블레이크는 대지에 대한 이러한 신화를 더욱 더 심원한 의미를 가진 신화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서 블레이크는 어떤 유리한 입장이나 피상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비평을 전달하기보다는 실재에 대한 환상적 비전속에 감춰 있는 대지의 고뇌 어린 정신이 극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대지에게 ‘소리(voice)’를 부여한다. 그리하여 영국 문학의 예언적 전통에 있어서 아마도 처음으로 블레이크에 의해 대지는 창조주에 대항할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게 된다.¹⁾

II

블레이크는 『순수의 노래』와 『경험의 노래』를 합권하며 판(plate)을 배열할 때 다소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시”와 “대지의 대답(Earth’s Answer)”을 분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암시하고 있는 큰 의미 중의 하나는 블레이크가 바드와 대지의 대립적 관점을 병치시킴으로써 타락한 세계에서 인간, 자연, 그리고 신에 대한 일들 중 어떤 것들이 진정한 상태인지를 밝히려려고 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블레이크는 경험의 세계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를 상상적으로 재현하고,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본질적인 변용적 인식을 이끌어 내려한다.

1)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Cf. Isaiah 49: 15) 그것은 대항의 소리가 아니라 신에 대한 복종의 소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이크에 있어서 경험의 상태에 대한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이 두 작품은 구문에서 기인하는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비평가들에 의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서시”는 『순수의 노래』의 “서시”와는 달리 예언자의 소명에 대한 장면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지만 바드의 예언적 소명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명시적인 면에서 본다면, 바드의 소리는 ‘예언적 소명’이라는 장르의 네 가지 구성 요소들, 즉 비전, 권한의 위임, 신과의 만남(예언자의 입을 정화하는 신성한 행위), 그리고 세속의 권력에 대비한 예언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보강 중에서 그 무엇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네 번째 요소인 세속의 권력에 맞설 예언자의 능력 강화를 제외한 세 가지 요소들은 시속에 간접적이면서 함축적인 양식을 통해 포함된다. 예언자의 자질을 입증하기 위해서 파이프는 『순수의 노래』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예언적 소명의 장면을 단순하게 상술했지만, 예언자로서의 바드의 선언은 강력하고 분명하다.

바드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는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본다—
귀로는 그 멀고 먼 옛날의 숲 사이로 걸어갔던
거룩한 말씀을 듣는다.

타락한 영혼을 부르며
저녁 이슬을 맞으며 통곡한다—
별빛 빛나는 대지를 억누르고,
타락하고, 타락한 빛을 새로이 할.

Hear the voice of the bard,
Who present, past and future sees—
Whose ears have heard
The Holy Word
That walked among the ancient trees,
Calling the lapsed soul
And weeping in the evening dew—
That might control
The starry pole
And fallen, fallen light renew.

바드는 우선 시간과 공간에 대한 포괄적 비전과 영감의 원천(Holy Word)을 간구함으로써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정당화한다. 그가 “거룩한 말씀(Holy Word)”을 들었다고 선언한 것은 예언자의 소명에 대한 구성 요소 중 권한 위임과 신과의 만남 등 두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를 인식하고 있다는 선언과 상상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의 언어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 비전을 암시한다. 바드의 이와 같은 선언은 자신의 예언적 사명에 대해 어떠한 의식도 보여주지 않은 파이프와는 달리 그가 예언자의 역할과 권위를 의식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일부 비평가들이 비록 바드를 신뢰할 수 없는 예언자(a visionary)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이크는 바드가 파이퍼처럼 신뢰할 수 있는 예언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블룸(H. Bloom)은 3행과 5행의 시제("have heard"와 "walked")는 바드가 현재의 생생한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닌 바드"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30) 그러나 현재 시제가 아니라 해서 바드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그들의 활동을 기술했던 것처럼 바드 역시 무엇 때문에 예언자가 됐는가를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영혼이 타락한 이후 에덴에 대한 비전 속에서 "거룩한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이다. 리비스(F. R. Leavis)는 블레이크가 "바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권위를 깎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한다.(142) 다시 말해서 바드와 "거룩한 말씀"이 그리스도-로고스(Christ-Logos)보다는 드루이드즘(Druidism)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턴』(Milton)의 서문에서 '거룩한 말씀'과 똑같이 옛 땅위를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³⁾ "멀고 먼 옛(ancient)"땅의 신의 이미지가 반드시 블레이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

목자-파이퍼가 순수의 노래에 적절했던 것처럼 바드는 경험의 노래에 적절하다. 이 두 화자는 그들이 예언적으로 인식한 세계들, 즉 하나는 면허받은 영국의 한가운데에 있는 '에덴의 세계'와 다른 하나는 풍요로운 땅 한가운데 있는 '지옥의 세계'에 각각 일치시키기 위해 활용된다. 사실상 리더(Z. Leader)의 지적대로 바드는 "종교적·군사적 야만 행위의 암흑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바드"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130) 왜냐하면 이 세계야말로 바드가 인식하고 개혁하려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리더의 관점을 빌면 바드의 목적은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파이퍼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

바드는 상상력의 예언자이다. 한때의 그였던 파이퍼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목표는 인간의 신성한 창조력, 즉 우리들 속에 내재한 '시적정기(Poetic Genius)'를 해방하는 것이다. 구약성경의 예언자처럼 바드의 노래는 사회비평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의 노래는 신성한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당대의 잔인하면서도 비극적으로 오도된 억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노래가 반대하는 것은 속으로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하는 음유시인 혹은 예언자의 말을 통해 이야기한다. 바드는 권위를 비난하지만, 권위를 갖고 이야기하며, 따라서 예언자처럼 '말씀을 듣는다.' 그의 노래는 각 개개인들의 모독, 순수의 하나하나의 세세한 점의 모독이 아니라, '개체성(the Individual)'에 대한 모독을 한탄한다. 노래에 담긴 분노와 연민은 국가, 문화 그리고 인류를 향해있으면서, 보편화되어있다. (Leader, 139140)

블레이크 특유의 수사학에서 비롯된 구문의 모호성은 바드와 대지의 역할의 성격과 한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블레이크가 과연 모호성을 수사적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문의 모호성이 바드의 상상

2) 쇼러는 이와 달리 블레이크에게 히브류 예언자들과 'Gaelic 바드'가 동일한 근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의 똑같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chorer, *The Politics of Vision*, p. 19).

3) Cf. "And did those feet in ancient time
Walk upon England's mountain green?" (Milton pl 1, 2122).

적 인식을 구체화하고 신성한 권위를 정당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블레이크가 수사적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주장일 것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2연의 "calling"과 "weeping"의 주체가 '거룩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5행부터 7행까지 신의 행위에 대한 창세기의 장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블레이크는 타락한 영혼을 부르는 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창세기의 낙원의 장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⁵⁾ 바드 역시 저녁에 이슬진 땅에서 '거룩한 말씀'의 전달자처럼 고통에 찬 어조로 타락한 영혼을 부르고 있다. 그래서 "calling"과 "weeping"은 타락의 시대에 존재했던 에덴의 '거룩한 말씀'과 후대의 바드를 동시에 언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드가 '거룩한 말씀'을 부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행위를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블레이크는 의도적으로 구문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수천 년이나 떨어져 있는 두 역사의 순간이 하나의 순간으로 융합되는 것을 묘사하려 한다. 이처럼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를 인식하는 바드의 선언은 그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

제 2연의 구문에서 또 다른 모호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control"과 "renew"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바드의 예언적 인식을 반영한다. 이 두 가지 행위의 문법상의 주체는 '거룩한 말씀'과 바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타락한 영혼"일 수도 있다. 이어지는 3연에서 대지에 대한 부름에서 판단해 보면 의미상으로 이 행위들은 바드나 '거룩한 말씀'보다는 "타락한 영혼"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블레이크는 궁극적으로는 통제(controlling)와 소생(renewing)의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불분명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대지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지의 재생이 대지 자신의 행위이기도 하고 대지의 창조행위이기도 하며, 그리고 창조주의 예언자의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대지 또는 "타락한 영혼"을 재생의 중심 세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 작품은 "동심적 단일 인류학(concentric monanthropology)"이라는 독특한 우주관—인간의 영적 상태가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차원의 실재는 인간의 상태와의 반응 속에 존재한다는 우주관—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대지와 '거룩한 말씀'의 행위들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며, 대지의 재생은 대지가 '거룩한 말씀'의 신부로서 그와 재결합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가 "이슬 맺힌 풀잎에서 나와" 일어나

4) Cf. "And they heard the voice of the Lord God walking in the garden in the cool of the day: and Adam and his wife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amongst the trees of the garden." (Genesis 3: 89).

5) 리비스는 블레이크의 "서시"와 창세기의 상이성에 주목하여 "블레이크는 기독교의 테마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단적 목적을 위해 그 테마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이때의 목적은 기존의 종교에 대한 블레이크의 신랄한 공격과 일치하는 것이다 (Leavis, *Revaluation*, p. 142). 글레크너는 제 2연이 "통렬한 아이러니(devastatingly ironic)"라고 하면서 "시 속에는 실제로 두 목소리 즉 바드와 '거룩한 말씀'의 두 목소리가 존재하며, 혼란스런 구두점 때문에 제 2연은 시를 읽을 때의 독자의 어조나 억양에 따라 두 목소리를 수식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다 (Gleckner, *The Piper and the Bard*, p. 232). 애클런드는 "control"과 "renew"의 주체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이것이 수사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주체의 모호성을 설명하는데 장애가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Ackland, "Blake's Problematic Touchstones to Experience", p. 5).

면서 에덴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점이 암시된다. 블레이크는 '거룩한 말씀' 또는 타락한 영혼이 이 세계를 부활시킬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쪽의 행위는 동시에 다른 쪽의 행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두 행위는 하나이다. 더욱이 바드 역시 "통제하고" 그리고 "소생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체이다. 그의 예언은 히브류 예언자들과 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언술적 사건을 구성하는 한 역사를 구성할 힘을 가진다. 신성한 권리를 밝히고 환상을 수정하며, 대지와 독자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바드는 "별이 빛나는 대지를 통제하고" 타락한 빛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처럼 구문의 모호성에 의해 예언적인 말과 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구체화된다. 바드의 예언자적 자질은 자신의 선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과거와 현재 속의 '거룩한 말씀'을 인식하는 힘—즉 시간과 공간의 장애물을 초월하는 힘—과 말을 행위로 바꿀 수 있는 힘, 즉 말 그 자체를 완성시키는 힘에 의해 정당화된다.

신의 이름과 성격으로 보아서 블레이크는 원죄 이후로 여호와(Jehovah)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간을 불렀다는 밀튼식 해석을 따른 것처럼 보인다. 성격에 있어서 '거룩한 말씀'은 확실히 창세기의 신(Lord God)보다 밀튼의 메시아(Messiah)에 더욱 더 가깝다고 할지라도, 블레이크의 '거룩한 말씀'은 프라이(N. Frye)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밀튼의 "온유한 심판자(mild Judge)"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31) 사실상 실제로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있는 바드는 심판자가 온유하든 그렇지 않은 간에 상관없이 대지의 창조주를 심판자로 생각하는 성서와 밀튼의 관점을 수정한다.

성경이나 밀튼에 등장하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거룩한 말씀'은 이제 타락한 대지를 암시하는 "이슬 젖은" 땅으로 변화한 낙원의 대지를 위해 울면서 그의 예언자 바드를 통하여 깊이 상심한 목소리로 그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다.

오 대지여, 오 대지여 돌아오라!
 이슬 젖은 풀밭에서 일어나라!
 밤이 다하고,
 아침은 미망의 골짜기에서 일어난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왜 그대는 외면하려 하는가?
 해방의 날이 오면 그대에게
 별빛 빛나는 하늘과
 물이 넘실대는 해안이 주어지리니.
 O Earth, O Earth, return!
 Arise from out the dewy grass!
 Night is worn,
 And the morn
 Rises from the slumberous mass.
 Turn away no more.
 Why wilt thou turn away?
 The starry floor.

The watery shore
Is given thee till the break of day.

대지에 행하는 비탄에 젖은 말을 통해 본다면 '거룩한 말씀'은 나자로(Lazarus)를 위해 울었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강력한 유사점을 보인다. 또한 '거룩한 말씀'은 부정한 이스라엘의 남편이자 변덕이 심한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사랑과 고뇌의 신—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그는 사랑의 측면이 강조된 신—과 유사하다. 비평가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신의 이러한 사랑의 측면을 무시하고 냉혹하게 비판하고 벌을 주는 분노의 입법자와 너무도 쉽게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구약의 신의 사랑이 종종 정죄에 대한 분노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블레이크는 신을 사랑의 창조주로 강조한다. 따라서 블레이크는 "서시"에서 새로운 종교적 인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지의 재생은 '거룩한 말씀'의 부활의 행위보다는 오히려 그 영혼의 복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대지는 '거룩한 말씀'으로 되돌아감으로써 그리고 "별이 빛나는 하늘"과 "물이 넘실대는 해안"이 신의 섭리를 따라 그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에덴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슬 맺힌 풀밭으로부터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하여 이제 대지는 "별이 빛나는 대지를 통제하고, 타락한 빛을 다시 새로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블레이크가 "return"과 "turn away"같은 성서의 표현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시 재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지의 역량에 대한 그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문상으로 대조적 입장에 있는 "return"과 "turn away"(11행과 17행)를 사용하여 블레이크는 그가 처한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지의 능력—다시 말해서 '거룩한 말씀'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다시 낙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블레이크는 실재에 대한 대지의 인식이 그에 대한 바드의 인식과 직접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리고 신의 이미지를 금지의 입법자나 심판자로 보는 것은 하나의 환상, 즉 "옛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잔인하고 질투심이 많으며, 이기적인" 이미지는 환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대지의 대답(Earth's Answer)"은 대지가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지가 바드의 말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은 대지가 바드의 말을 듣고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 즉 "별빛이 빛나는 하늘"과 "물이 넘실대는 해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요소들을 통해서 대지는 실재에 대해 완전히 다른 모습을 구성해 낸다.

1연에 묘사된 대지의 상태는 "서시"에서 환기된 이미지보다 훨씬 황량하게 보인다. 이제 막동이 트려 하는 "이슬 맺힌 풀밭"과 함께 하는 땅과는 대조적으로 대지는 완전한 암흑 속의 돌과 서리 덮인 풀밭으로 이루어진 동토로 묘사되고 있다.

대지가 무섭고도 황량한 어둠으로부터
그녀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빛은 사라졌고
(냉혹한 공포!)
그녀의 머리칼은 잿빛 절망으로 덮여 있다.

'물 넘실대는 해안가에 갇히고,
별들의 질투가 나의 처소를 지킨다.
쫓고 머리가 허연,
애통해하는 나는
옛사람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

Earth raised up her head
From the darkness dread and drear.
Her light fled
(Stony dread!)
And her locks covered with grey despair.
'Prisoned on watery shore,
Starry jealousy does keep my den:
Cold and hoar,
Weeping o'er,
I hear the Father of the ancient men.

대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별이 빛나는 대지”는 질투로, “물이 넘실대는 해안”은 감옥으로, 밤은 족쇄로 변화되어 있다. 비록 1행의 동사 “raised”가 “무시무시하고 황당한 어둠”에 의해 꺾여 버린 희망을 일깨우는 대지의 대답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질곡에 찬 대지의 상황을 보여준다. 바드에 대한 대지의 부정적인 반응은 길햄(W. Gillham)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대우라고 볼 수 있다.(46) 대지의 반박은 바드의 부름에 대한 “외면(turn-away)”을 의미하면서 대지가 지고 있는 고통을 암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홀러웨이(Holloway)이 지적대로 이러한 외면과 고통이 경험 세계의 보편적 현상임을 말해준다.(46)

2연에서 블레이크는 대지가 타락한 상태 속에 묶여 있다는 인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시 문법상의 모호성을 이용한다. 구문으로 보면 “cold and hoar”와 “weeping o'er”는 아마도 “별들의 질투” 또는 “I(대지)”를 언급하는 것 일 수도 있으며, 그리고 의미상으로 보면 역시 이 두 주어는 그 묘사와 일치한다. “서시”에서는 바드뿐만 아니라 ‘거룩한 말씀’도 울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옛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대지의 말은 “냉담하고 백발인” 늙은이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또한 “물 넘실대는 해안가에 갇힌”이라는 어구는 “별들의 질투” 또는 “I”를 수식할 수 있다. 대지는 “옛 사람들의 아버지”가 자신을 구속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뜨렸다고 비난하려 하지만, 그 자신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미지에 그가 흑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비록 질투의 아버지(혹은 신)가 대지를 “물이 넘실대는 해안”에 구속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이 신을 인식한 대지 역시 신—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대지의 개념—을 물이 넘실대는 해안에 가둬 두고 계속해서 “냉담하고 머리가 허연” 상태로 처하게 한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대지가 제시하고 있는 신이 그 자신의 상태를 투영하는 것이거나, 러한 모호성 이외에도 대지뿐만 아니라 창조주 역시 “서시”에서 보였던 젊은 모습에서 나이든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쪽의 상태가 동시에 다른 쪽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서시”의 ‘거룩한 말씀’이 여전히 “이슬 맺힌 풀잎”을 지니고 있는 대지의 남편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대지의 대답”의 ‘거룩한 말씀’은 옛 사람들이 섬기는 백발의 신으

로 변화하고, 이때 신은 풀잎이 “젓빛 절망으로 덮인 머리털”로 변화한 대지를 구속한다. 신의 존재가 사랑의 남편이라기보다는 백발의 잔인한 아버지로 인식될 때, 대지와 신 사이의 관계 역시 구속이라는 계층적 관계로 필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블레이크는 주체와 객체, 원인과 결과, 그리고 압제자와 피압제자 사이의 관계를 이러한 모호성 속에 다 융합함으로써 타락한 상태가 대지와 옛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 공동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려 한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아버지여!
잔인하고 시샘하는 이기적인 공포여!
어둠속에 묶인
기쁨이 과연
젊은 아침의 처녀들을 잉태할 수 있을까?

'꽃봉오리와 꽃들이 피어날 때,
봄은 그 기쁨을 감추는가?
씨 뿌리는 자는
밤에 씨를 뿌리는가?, 혹은
농부는 어둠속에서 밭을 가는가?

'내 뼈를 얼어붙게 하는
이 무거운 사슬을 부수어다오.
자유로운 사람을 굴레로 묶어버린
이기적이고, 헛된
영원한 재앙을 깨뜨려다오.

'Selfish Father of men!
Cruel jealous selfish fear!
Can delight
Chained in night
The virgins of youth and morning bear?
'Does spring hide its joy
When buds and blossoms grow?
Does the sower
Sow by night,
Or the ploughman in darkness plough?
'Break this heavy chain
That does freeze my bones around.
Selfish, vain,
Eternal bane—
That free love with bondage bound.

“별빛이 빛나는 하늘”과 “물이 넘실대는 해안”이 신의 섭리에 의해 그에게 주어졌다는 바드의 말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그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대지는 창조주 때문에 이들에 속박돼 있다고 항변한다. 대지의 항변은 요컨대 ‘거룩한 말씀’의 요구대로 세상을 인식하기 어렵고 그

리하여 신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질투와 분노의 신 때문이란 것이다. 대지는 '거룩한 말씀'을 들었다고 선언한 바드에게 마치 도전하는 것처럼 "옛 사람들의 아버지"가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사랑과 기쁨을 금지시키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다.⁶⁾

대지가 제시하고 있는 창조주의 이미지는 바드가 제시하고 있는 이미지와는 정반대이다. 옛 사람들의 아버지인 질투의 신은 블레이크가 거룩한 말씀과 분리하려는 신의 일부이다. 히브류 예언서에서 신은 이스라엘의 부정—이교도 신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숭배를 의미하는 메터퍼—을 비난하고, 엄중한 형벌을 내리면서,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사랑과 구원이라는 보다 큰 목적과는 완전히 유리된 신의 이러한 측면들—즉 분노하고, 비난하며 그리고 요구하는 측면—은 대지에게 "잔인하고, 질투심 많고, 그리고 이기적인" 존재로 비춰진다. 대지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신이 아니라, "옛 사람들"에 의해 창조된 이후 여태까지 기존의 종교에 의해 조장돼 왔던 그릇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신이라고 블레이크는 생각한다. 그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랑과 기쁨이 찬미되는 에덴의 상태에서부터의 대지가 타락한 이유는 이러한 그릇된 신의 이미지를 진정한 신의 이미지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달리 보고, 또 그것이 신의 축복으로 가득차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뼈를 열게 하는 목직 한 사슬"과 "자유로운 사랑을 구속으로 묶어 버린 영원한 재앙"이 풀려야만 한다. 이 점을 블레이크는 거룩한 말씀 또는 바드와 대지사이의 부름과 대답의 관계에서 드러내 보인다. 따라서 독자의 관심을 무엇이 대지로 하여금 그렇게 응수하게 했는가에 쏠리게 하고, 독자로 하여금 대지의 항변처럼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제약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한다.

III

『순수의 노래』에서의 사회적·종교적 비평은 전적으로 함축적으로 제시된 반면 『경험의 노래』에서의 이러한 비평은 거의 모든 노래들에서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성목요일(Holy Thursday)", "런던(London)" 등의 화자들은 짝을 이루고 있는 순수의 화자들보다도 더 많은 한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경험의 화자에겐 순수의 화자들이 보여주었던 자질인 현실에 대한 상상적 언급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길햄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성목요일" 두 작품을 통하여 순수의 화자가 훨씬 더

6) 특히 3연과 4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성적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말들, 가령 "delight", "the virgin of youth", "bear", "spring", "buds", "blossom", "sow", "plough" 등은 대지가 원하는 해방이나 바드가 "서시"에서 예언한 "the break of day"가 성의 해방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베잇슨이 이 이미지들을 "sexual millenium"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듯이 성적 이미지를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블레이크의 진정한 의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F. W. Bateson, ed. *Selected Poems of William Blake* [London: Heinemann, 1969], p. 113).

위대한 통찰력과 책임감을 소유하고 있어서 월등한 도덕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경험의 화자보다 더 나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목요일” 두 작품에서 블레이크는 너무도 달라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게 하는 세인트 폴성당의 예배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어떤 의미에서 각각의 시는 시를 얘기해가는 화자의 정신구조로 본다면 옳다. 그들은 다른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어떤 관찰자가 보다 나은 목표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험의 시편들에 나타난 보다 훌륭한 세속적 지혜와 외관상의 우월한 도덕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보다 위대한 통찰력과 보다 더 믿음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순수의 노래들이다. (22)

이처럼 순수의 화자들이 현세를 자비와 연민,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세계로 변화시키는 반면에 경험의 화자들은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종교에 의해 마련된 편의적 관점들을 거부한다. 그러나 연민이라는 보다 긍정적 행위들을 수반하고 있는 순수의 말은 보다 안정된 형식 속에서 지속될 수 있지만, 사회나 우주의 악에 대한 분노나 절망감은 보통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법이다. 그래서 『경험의 노래』에서 블레이크가 택한 수사적 전략은 『순수의 노래』의 화자들이 보여준 것과는 다르다. 경험의 노래의 명시적 비평의 효과가 순수의 노래의 함축적 비평만큼 강력한 것은 못된다고 할지라도 이 비판적 시들이 거둔 상상적 업적은 역시 대단한 것이어서, 우리는 화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인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화자들이 기존 체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개념들인 사회적·정치적·종교적 질서들을 전복시키고, 이러한 개념들이 인간의 삶을 해치는 파괴적 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성목요일”은 자선학교를 사람들이 평상시에 믿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사회적 불의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강력하게 비난한다. 경험의 노래의 작품들이 거의 그렇듯이 이 작품 역시 당시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일례로 1788년 6월 6일자 『더 타임』(The Times)지는 예수승천일 예배에 대해 “반듯이 사람들에게 연민과 동포애를 고양시킬”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⁷⁾ 화자는 사람들이 평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관점을 전복시킴으로써 히브류 예언자들과 똑같은 수사 전략을 이용한다. 말하자면 기존 체제의 핵심적 용어와 개념을 전복함으로써 강력한 사회비평의 효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주에 참조로 인용한 신문 보도와 작품을 비교해 보면 블레이크가 채택한 수사 전략의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7) “. . . the glorious sight of 6000 children, reared up under the humane direction of the worthy Patrons, and supported by the public contributions of well disposed persons. . . aiding to the nurture of a future generation to fight his [majesty's] battles—carry forward the commerce and manufactories of Great Britain, and assist in maturing infant arts, to the honour and prosperity of the country. The scene was the most pleasant to be conceived to every friend of Orphan innocence, in seeing so many adopted children of public benevolence brought together, and skreend from the rude hand of misery and shame. (Erdman, *Prophet against Empire*, p. 122.)

풍요롭고 비옥한 땅에서
 과연 이것은 보기에 거룩한 광경인가—
 아이들은 비참한 신세로 내몰려,
 냉담하고 수전노같은 손길에 자라난다.

저 떨리는 울음소리가 노래인가?
 그것이 기쁨의 노래일 수 있는가?
 이렇게도 많은 아이들이 가난한데도?
 빈곤의 땅에 불과한 것을!

Is this a holy thing to see
 In a rich and fruitful land—
 Babes reduced to misery,
 Fed with cold and usurous hand?
 Is that trembling cry a song?
 Can it be a song of joy—
 And so many children poor?
 It is a land of poverty!

수사 의문문을 이용하여 화자는 기존 체제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대립이 사실이라는 것—즉 사람들이 자선에 대한 찬미가 “보기에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존 체제의 수사학을 전복시킨다. 화자는 어린이들이 “냉담하고 수전노 같은 손길”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자선학교 어린이들을 번영한 국가의 자비로운 정신의 증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만족을 공격한다. 허쉬(E. D. Hirsch)의 지적대로 아무리 가난한 아이들 일지라도 수천 명이 내지르는 소리는 “떨리는 울음소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219) 화자는 예전의 관념에서는 진실이었던 것을 과장을 통해 그릇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과장의 원천은 어린이들에게 가해졌던 야만적 행위에 대한 화자의 강력한 인식이다.

화자와 같은 행동주의자들에게 전략은 곧 실재를 결정한다. (Leader, 163) 분명 여기서 화자는 그 정서가 “훌륭한 후원자들”과 『더 타임』의 기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순수의 노래』의 천진무구한 화자를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기자의 반응은 자비로운 행위들에 대해 자기축하의 의미를 보여주지만, 순수의 노래의 화자들의 반응은 전적으로 비이기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자는 진실로 감동하여 어린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의 화자는 가난을 낳게 하고 이기적 목적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회의 체제를 공격한다. 화자의 분노는 어떤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추상적 연민에서 우러나온 것임은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그 당시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화자가 설정한 개념, 즉 “가난이 잠재된 땅이라면 풍요롭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개념”은 표면적으로 대단히 추상적인 것이다. (Gillham, 23) 그러나 여기서 화자의 상상적 인식은 『순수의 노래』의 “성목요일”의 화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의 불행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선단체의 걸모습을 꿰뚫어 통찰하여 찬양의 노래 속에서 도움을 간구하는 어린이들의 외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

기존 체제의 수사를 벗김으로서 화자는 자선학교 어린이들의 살고 있는 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리고 그들의 태양은 결코 빛나지 않으며,
그들의 들판은 헐벗고 황량하다.
그들의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
하여 그곳에 영원한 겨울이 있을 뿐!

And their sun does never shine,
And their fields are bleak and bare,
And their ways are filled with thorns:
It is eternal winter there!

순수의 화자들이 현실의 심연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에덴의 질서를 발견한 것처럼 이 작품의 화자 역시 자선학교 어린이가 살고 있는 세계의 불모의 질서를 통찰하고 있다. 은유적 인식 방법을 통하여 화자는 모든 인간적 열망을 방해하고 부정하는 질서—여기서는 가난과 비인간적 제도—를 밝혀낸다. 『더 타임』의 기자는 자선학교가 어린이들을 불행과 불명예라는 무례한 손아귀로부터 “보호한다(skreend)”한다고 믿었지만, 화자는 어린이들의 세계를 파멸시키는 제도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나서—기존 체제에서는 영국에서 그러한 질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는 이 세계를 존재의 건강한 질서가 진정으로 유지되는 땅과 비교한다.

왜냐면, 태양이 빛나는 곳이라면,
비가 내리는 곳이라면,
어린 아이들 주리는 일 없고,
가난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 없을 것이기에.

For where'er the sun does shine,
And where'er the rain does fall,
Babe can never hunger there,
Nor poverty the mind appall.

마지막 행의 가난 때문에 “놀랜” 마음은 어린 아기의 것일 수도 있고 “현명한 보호자”의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풍요로운 땅에서 일어나는 모순에 분노를 느낀 화자나 독자의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교묘한 다중성 때문에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이라는 순수의 진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동시에 희생은 희생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파멸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의 노래의 주제를 암시하게 된다.

일부 비평가들은 화자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 펼쳐진 광경들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화자의 말은 과장법을 이용한다던가, 과장된 형식과 단언적 표현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화자의 어조는 공격적이며, 심지어는 극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이 화자가 적절히 못하다는 것을 나

타내는 것은 아니며, 예언자의 태도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드가 행동주의적 시인으로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은 예언자적 시인으로서의 기능을 보여줄 때이다. 이때 예언자적 시인으로서의 기능은 팔레이(M. D. Paley)의 표현을 빌린다면, “미래에 관한 예언보다 인간의 행위 속에 숨겨진 동기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64) 예언자의 비전의 영역은 심원하고 포괄적이지만, 사회의 불의에 대한 비평은 신성한 질서에 대한 비전에 의해 표명되며, 현실의 영적 상태를 강조하게 된다.

“런던”에서 블레이크는 “성목요일”에서 자선학교로 대표되는 기존 체제의 겉모습을 전복하였듯이, 당시 휘그(Whig)의 이데올로기의 중심적 개념이며 18세기 법적 수사학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용어인 ‘헌장(the charter)’을 전복시킨다.(Thompson, 8) 대헌장(Magna Charta)에서 유래한 헌장들은 원래 그 기능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페인(Thomas Paine)은 『인간의 권리』(The Rights of Man)라는 산문으로 썼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블레이크는 “런던”을 썼던 것이다.

헌장이 권리를 부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을 왜곡한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로 작용한다.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헌장은 다수의 그러한 권리를 말살하면서 소수의 손아귀에 독점적으로 권리를 쥐어준다. (Paley, 10)

블레이크는 헌장이 겉보기와는 달리 억압의 도구라는 것을 밝혀 낸다. “chartered”란 말을 반복함으로써⁸⁾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거리와 심지어는 강물까지 수식함으로써 헌장의 진정한 성격이 속박에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가까이 법제화된 템스강이 흘러가는
모든 법제화된 거리를 헤매며
마주치는 모든 얼굴에서
허약하고 비탄에 잠긴 표정을 본다.

I wander through each chartered street
Near where the chartered Thames does flow,
And mark in every face I meet
Marks of weakness, marks of woe.

글렉크너(R. F. Gleckner)는 『순수의 노래』에서는 “merry”, “tender” 그리고 “mild”와 같은 단순한 형용사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보다는 확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경험의 노래에서는 명사를 확장하기보다는 “왜곡하고, 곡해하며, 전복시키고, 뒤집어서(warped, perverted, turned upside down and inside out)” 명사를 근본적으로 수식하면서 명사에 마음이

8) 작품의 초고에서 블레이크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다는 의미에서 “dirty”를 사용하였으나, “cheating”의 의미를 암시하는 “chartered”로 바꾸었다. 어드만에 의하면 이 말은 그의 *Rule Britannia*에서 “영국의 헌장(the charter of the land)”이 영국인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톰슨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다 (Erdman, *Prophet against Empire*, p. 276).

버려 만든 족쇄를 썩워 버린다고 지적한다.(327) 그래서 “chartered”라는 형용사는 거리와 강이 처할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 입장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Gavin Edward)의 지적대로 거리와 강이 “언제나 이미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고, 이름이 붙여져 있으며,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33) 화자의 편에서 본다면 상실감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두 연에서 블레이크의 시점은 교회와 국가로 그리고 이 두 존재에 의해 공인되는 결혼 제도로 옮겨간다.

굴뚝청소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음험한 교회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불운한 병사의 탄식이
 궁정 담 밑으로 피가 되어 흐르는가를.

그러나 주로 한밤중 거리에서 나는 듣는다.
 젊디젊은 창부의 저주가 어떻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눈물을 말리며
 결혼 영구차를 전염병으로 시들게 하는 가를.

How the chimney-sweeper's cry
 Every blackening church appalls,
 And the hapless soldier's sigh
 Runs in blood down palace walls:
 But most through midnight streets I hear
 How the youthful harlot's curse
 Blasts the new-born infant's tear
 And blights with plagues the marriage hearse.

신에 의해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을 보살피도록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교회는 오히려 억압의 하수인으로 밝혀진다. 이와 비슷하게 신에 의해 국가의 복리를 보장하도록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궁전 혹은 왕은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의 동인임이 드러난다. 어드만은 “피가 되어 왕궁 벽을 따라 흐르는” 병사의 “한숨”은 1792년과 93년 사이의 “왕궁 벽에다 종종 적혀 있었던” 저주의 말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278) 죽어 가고 있는 병사들은 외국의 적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사회의 풍요의 근원인 결혼마저 부부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에게까지 죽음을 초래하게 하는 재앙임이 밝혀진다. 창녀에 의해 시들어 버린 “결혼 영구차”라는 응축된 이미지는 연인들의 축복받은 결합에서 병으로 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결혼 제도의 왜곡 현상을 가리킨다. 이제 화자의 인식은 실재의 예언적 차원을 통찰한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삶을 창조할 최고의 가능성에 도달하는 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삶을 부정하는 요소들이 당대에 공공연히 시행되었던 결혼의 원리라고 판단하고 “결혼 영구차”라는 결정적인 이미저리를 통해 원인 속에서 그 궁극적인 결과 즉 결혼에서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블레이크의 궁극적인 공격의 목표는 이러한 제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런던”의 화자는 실재의 깊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의 파멸적 결과는 이미 원인 속에 충분히 제시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런던”에서 독자들은 원인과 결과, 주체와 객체 그리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융합에 의해 압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3연의 “음험한 교회(blackening church)”에서의 구문의 모호성은 이러한 융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교회는 굴뚝 소제부들의 고용을 낳게 한 도시의 매연에 의해 그을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어린 아이들을 가혹한 착취를 방관하면서 야만적인 착취에 의해서 번영을 구가하는 사회 체제를 공인함으로써 굴뚝 소제부로 상징되는 모든 희생자들을 실제로 그리고 영적으로 검게 만들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한 소제부 아이들에게 문을 닫아걸면서 그들의 착취를 공인함으로써 교회는 도덕적으로 이미 더럽혀졌으며, 교회의 끔찍한 도덕적 실패를 함축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소제부들의 울부짖음은 교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appalls).” 그러나 굴뚝 소제부들의 “통곡소리”는 구약의 예언서에서 만가를 통해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렸듯이 교회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다.

“런던”의 3연의 마지막 두 행은 삶에 대한 파괴의 이러한 자기 반영적 성격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궁전은 병사들을 싸움터로 내보냄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초래하였지만, 그 결과 이들이 흘린 피가 궁전 벽을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울부짖음, 공포, 그리고 죽음의 진정한 가해자는 국가의 정치·종교 지배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버려 만든 족쇄를 낳고 수용하는 인식 방식과 사유 방식이다. 화자는 2연에서 바로 이러한 현상을 예리하게 통찰한다.

모든 사람들의 울음 속에서
모든 어린 아이들의 공포에 질린 울음 속에서
모든 목소리와, 모든 금지령 속에서
나는 마음이 버려 만든 족쇄의 소리를 듣는다.

In every cry of every man,
In every infant's cry of fear,
In every voice, in every ban,
The mind-forged manacles I hear—

비록 화자가 처음에는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에 주목하지만, 다음에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에 서, 모든 금지에서” 마음이 버려 만든 족쇄의 소리를 듣는다. 이 행은 그 족쇄가 금지를 선언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금지를 강요당하는 사회의 다른 끝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구속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허쉬의 지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블레이크의 기법은 공포와 그 원인을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하여 무시무시함 정의, 즉 공포가 그것을 야기한 바로 그 압제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손상시키며, 시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64) 런던과 그 시민들의 악몽과도 같은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현상(status quo)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압제자와 피압제자 모두의 심리상태이다. 블레이크의 비

전은 심지어는 사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제도를 초월하는 보다 더 심원한 차원의 실재를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성목요일”의 경우에서처럼 일부 비평가들은 “런던”의 화자가 예언적 화자가 아니라 자신이 인지한 것에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는 비평가인 소위 ‘되다가 만 예언자(a prophet manqué)’ 또는 그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블룸은 이 작품이 에스겔서 9장을 수정한 텍스트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화자는 계시록적 비전을 부여하는 ‘예언가(visionary)’이지만, 그가 목격한 장면에 압도당한 나머지 신의 말씀을 대중들에게 “설파했던” 에스겔과 같은 예언가가 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404) 글렌(H. Glen)의 경우도 블룸의 반어적 읽기의 예를 따라 “모든 존재들 위에 그만의 파멸적인 흔적을 새김으로써” 그가 공격하고 있는 사회에 화자 스스로 무심결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63) 화자 자신이 그가 인식한 것에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예언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국민들 때문에 고통과 슬픔 그리고 낙담의 심정을 예언서에 토로했던 것처럼⁹⁾ “런던”의 화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톰슨은 “런던”에서 정직한 분노의 목소리가 “연민의 목소리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된다.(20) ‘거룩한 말씀’과 바드가 “서시”에서 대지의 역경에 대해 그랬듯이, 그리고 “병든 장미(The Sick Rose)”와 “아! 해바라기(Ah! Sun-flower)”의 화자들이 꽃들의 상태에 대해 그랬듯이, “런던”의 화자 역시 공포, 울부짖음, 한숨 그리고 이것들의 원인과 결과를 인식하고는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폭넓은 비전을 통해서 화자는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입장을 판별하고 있는 것이다.

블레이크는 경험의 노래의 거의 모든 노래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삶에 해를 끼치는 인습적 도덕률을 비판하면서, 도덕률이 원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복리를 보장하는 유익한 가치와 규범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자비, 정숙, 그리고 관용 등 평소 귀중하게 여겨져 온 미덕들이 순수의 화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자발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이 미덕들은 억압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이 자기 존재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자들과는 달리 『경험의 노래』의 예언적 화자들은 침해와 파멸의 모든 과정을 인간화한다. 침해는 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삶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파멸은 천상으로부터의 신의 형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한 존재를 파괴시키는 인간의 행위의 필연적 결과이다. “마음이 버려 만든 족쇄”는 “런던”, “서시” 그리고 “병든 장미”와 같은 작품에서 침해이자 파멸이다. 그리고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하면서도 인간이 복종해야만 하고, 자신

9) 일례로 예레미야(Jeremiah)는 유다(Judah)의 운명에 대한 비전 때문에 다음과 같이 번민한다: My bowels, my bowels! I am pained at my very heart: my heart maketh a noise in me: I cannot hold my peace, because thou hast heard, O my soul, the sound of the trumpet, the alarm of war. Destruction upon destruction is cried: for the whole land is spoiled: suddenly are my tents spoiled, and my curtains in a moment. How long shall I see the standard, and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4: 19-21)

의 사악한 행위로 인해 인간이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는 예언적 화자의 구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경험의 노래의 화자들이 위선과 사회적 불의를 어떤 경우는 함축적으로 또한 어떤 경우는 명시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악들은 결코 죄로 비난받지 않는다. 글렌의 지적대로 블레이크는 위선이나 사회적 불의같은 개개의 경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도덕적 사유(moral thinking)”에 관심을 기울인다.(33) 그의 목적은 과연 실재를 사유하고 인지하는 어떠한 방식들이 어떻게 압제자와 피압제자 사이의 정상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삶에 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의 노래』에서 주체와 객체, 원인과 결과, 그리고 침해와 파멸은 삶의 파괴가 자기 파괴의 속성을 갖는 인간적·자연적 행위임을 반영한다.

IV

『경험의 노래』에서 전복적 비평은 비록 시인이 문제들의 중요성을 시간을 초월한 시각으로 보여주지만, 표면화되어 있으며 당대의 현실을 그 무대로 한다. 블레이크가 당대의 현실과 역사를 배경으로 채택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짧은 서정시가 보다 발전된 문맥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인유에 의한 정치적 비평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부분적으로 블레이크 자신이 그의 시대의 문제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밝혀내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블레이크에게 그런 문제들을 멀리 떨어진 시대로 전치시켜 간접적으로 공격하기에는 직접 눈에 보이는 파괴적 환경의 압력이 너무도 드센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험의 노래』에서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블레이크의 관점은 지극히도 급진적이다. 그는 인간의 타락의 진정한 주범은 마음이 버려 만든 족쇄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모든 종류의 억압의 원인을 추론해 내려고 애를 쓴다. 그가 인식한 정신과 세계 사이의 자기 반영적 관계에 대한 사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이크의 진정한 천재성은 세계로부터 어떤 메커니즘 또는 체계(특히 심리적 체계)를 이끌어 내고 이 메커니즘에 알맞은 역동적 상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그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그 자체의 의지를 가진 일종의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로 제시한다. 경험의 노래에서 블레이크는 독자들에게 오류를 인식시키고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압제자와 피압제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정신의 사악한 작용에다 이름과 형체를 부여한다. 더욱이 블레이크는 그의 관점에서 성경과 밀튼의 전통적 신의론(theodicy, 神義論)을 수정하여 정의의 진정한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일체적 삶(corporate life)—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고 타인의 삶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삶—에 대한 블레이크의 인식은 자기 반영적 침해와 파멸의 복합 관념 속에 함축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마음이 버려 만든 족쇄에 대한 개념과 정의의 자기반영적 질서에 대한 개념은 블레이크의 예언적 비전이 그만큼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험의 노래』가 예언자적 시인인 바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순수의 화자들과 같이 경험의 노래의 다른 예언적 화자들뿐만 아니라 바드 역시 시간

과 공간, 신, 인간, 그리고 자연의 장애물들을 초월하는 방식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그러나 순수의 화자들과는 달리 바드는 자신이 이러한 장애물들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사회와 인류가 처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통찰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십분 이용한다. 『시적 소묘』의 예언적 화자들이나 『순수의 노래』의 파이프와는 달리 경험의 노래의 예언적 화자들은 “서시”의 1행에서 4행까지 바드의 선언이 보여주고 있듯이 그들의 선언의 권위와 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 신성한 진리는 화자를 방문해 그들의 손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화자들은 상상적 인식의 신성한 힘과 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말씀과 일체가 되고 순수와 경험을 통합하고 있는 비전을 통해 바드는 블레이크가 옹호하고 있는 깨어 있는 상태 속에서의 인간을 구체화시킨다. 이처럼 『경험의 노래』는 예언자적 시인으로서의 블레이크의 비전과 수면 상태에 있는 인간을 깨우고자 하는 그의 사명감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REFERENCES>

- Ackland, Michael. "Blake's Problematic Touchstone to Experience: 'Introduction', 'Earth's Answer', and the Lyca Poems". *Studies in Romanticism* 19 (Spring 1980): 317.
- Blake, William. *The Complete Poetry and Prose of William Blake*. ed. David V. Erdman.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1.
- . *The Poems of William Blake: The Complete Poems*. ed. W. H. Stevenson. London: Longman, 1971.
- Bloom, Harold. *Blake's Apocalypse: A Study in Poetic Argument*. Ithaca: Cornell Univ. Press, 1963.
- . ed.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William Blake's Songs of Innocence and Experienc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5.
- Erdman, David V. *Blake: Prophet against Empir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7.
- Frye, Northrop. *Fearful Symmetry: A Study of William Blak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9.
- Gillham, D. G. *William Blak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3.
- Gleckner, Robert F. *The Piper and the Bard: A Study of William Blake*. Detroit: Wayne State Univ. Press, 1959.
- Glen, Heather. "Blake's Criticism of Moral Thinking in *Songs of Innocence and of Experience*." *Interpreting Blake*. ed. Michael Phillip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8.
- Hirsh, E. D. Jr. *Innocence and Experience: An Introduction to Blake*.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5.
- Holloway, John. *Blake: The Lyric Poetry*. London: Edward Arnold, 1968.
- Koch, Klaus. *The Prophets*. Vols. I & II. Trans. Margaret Kohl. Philadelphia: Fortress, 1984.
- Leader, Zachary. *Reading Blake's Song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1.
- Leavis, F. R. *Revalua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8.
- Schorer, Mark. *William Blake: The Politics of Vision*. Gloucester: Peter Smith, 1975.
- Thompson, E. P. "London." *Interpreting Blake*. ed. Michael Phillip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8.

〈ABSTRACT〉

Bard and the Meaning of his Prophecy

Hur. Yoon Deok

Songs of Experience shows more explicitly the characteristics of prophecy than the earlier poems. Most importantly, Experience presents a figure of the prophet-poet, the Bard. Like the Piper, the Bard perceives the world by way of transcending the barriers of time and space and of the divine, the human, and the natural. But, unlike the Piper, the Bard is conscious of his ability to penetrate these barriers, and he uses this ability, as well as his power of insight, in order to reform the condition of society and mankind. Through the Bard, Blake reveals that the ultimate cause of social evils consists not in the established systems but in the "mind-forged manacles," the passive psychology that accepts them and looks upon them as the inevitable things.

Blake renders his prophetic perception of the world through his own rhetorical and experimental poetic devices such as syntactical and semantic ambiguities, and organic and transfiguring uses of religious, political, and literary traditions. And he also revises the visions and rhetoric of his predecessors and delivers the reader's mentality from the confines of established conception and conventional modes of thinking and awakens man's dormant capacity for perception of the infinite in the world. Finally, Blake intends to build 'New Jerusalem' or Eternity, a democratic world, in which the variety and individuality of all individuals coexist in harmony and all of beings have a organic and active relationship to each other.